

동정의 위기

김현경

길에서 걸인을 만나면 마음 착한 사람들은 지갑을 꺼낸다. 하지만 조금 뒤에 또 다른 걸인이 있으면 그때는 그냥 지나친다. 동정이 이렇게 변덕스러운 감정이라면 그래도 동정에 도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동정이라는 이 의심스러운 미덕이 도덕의 역사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살펴보고, 미디어의 발전이 어떻게 동정의 위기를 초래했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우리는 왜 타인을 도와야 하는지, 그 도움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묻고 타인의 존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논의한다.

주요 논의 내용

- 동정, 이 의심스러운 미덕
- 미디어와 동정의 정치
- 피터 싱어의 이타주의: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 이타주의와 정의의 정치

우리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야 하고 최소한 그의 불행에 대해 동정을 표하는 것이 도리라는 말을 들어왔다. 하지만 동시에 ‘지나친 동정심’이 수상쩍게 여겨진다는 것 역시 알고 있다. 지나친 동정심은 이기심을 감추고 있다든지, 허영과 자만의 다른 표현이라든지, 마음의 병을 나타낸다는 등의 의심을 받는다. 맨더빌은 동정이 분노나 자만과 마찬가지로 “우리 본성의 약한 부분”에 속한다고 말했다. 동정은 이성에 아랑곳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충동이기에 때문에 거기에서는 선뿐 아니라 악도 나올 수 있다. 판사가 동정심에 사로잡혀서 치우친 판결을 내리는 것이 그러한 예다.

니체는 동정은 나약함에서 비롯되며, 불행을 겪는 사람뿐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까지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고통의 총량을 늘릴 뿐이라고 생각했다. 또 불행한 사람을 돕는 것은 그를 지켜보는 우리 자신의 고통을 줄이기 위함이므로 순수하게 이타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보들레르는 걸인에게 돈을 주기보다는 한 대 때려주어서 그의 자존심과 생기를 되찾아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렌트는 동정과 공감을 구별하면서 공감이가 개별적이며 대체 불가능한 타자를 향한 감정인 반면, 동정의 대상이 된 사람의 자리에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은 조용하지만 동정은 수다스럽다. 동정은 불행을 일반화하며, 그것에 대해 일반적인 치유책을 제시하려 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공감과 달리 동정은 정치적이다. ‘동정의 정치’는 ‘정의의 정치’와 대비된다. 사람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 없을 때 동정의 정치가 생겨난다.

김현경

서울대학교에서 인류학을 공부하고 프랑스로 건너가 사회과학고등연구원에서 ‘역사와 문명’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 논문은 한국의 근대화와 해외유학 관행에 대한 것이었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는 서울대, 덕성여대, 연세대 등에서 인류학을 가르쳤다. 독립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학술 논문에도 대중적인 에세이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글쓰기 형식을 실험하는 중이다. 지은 책으로 『공간주권으로의 초대』(공저), 『사람·장소·환대』가, 옮긴 책으로 『언어와 상징권력』, 『역사를 어떻게 쓰는가』(공역) 등이 있다.

19세기까지 주로 빈민을 대상으로 했던 동정의 정치는 미디어의 발달 덕택에 새로운 단계로 확장되었다. 안락한 거실에서 저녁시간을 보내는 시청자들의 눈앞으로 지구 저편에서 펼쳐지는 비참한 광경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윤리적인 문제들을 낳았다. 고통의 현실에 대한 지나치게 자세한 묘사는 고통 받는 사람들의 인격적 존엄을 훼손하면서 일종의 포르노그래피로 전락할 수 있다. 고통의 현장에 입회하는 ‘먼 곳의 관객’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은 더욱 날카롭게 다가온다.

피터 싱어의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는 이런 문제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읽을 때 매우 흥미롭게 다가온다. 싱어는 우리가 다른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은 한 고통 받는 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과 우리가 물리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일 아침 당신이 지하철 계단에서 마주치는 걸인과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벙갈의 아이들은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아무 차이가 없다. 싱어는 표면상 타인의 고통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에 호소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는 동정을 사실상 의무의 영역으로 끌어오며, 정의의 문제와 결합시킨다. 동정은 더 이상 자의적인 인출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타자에게 지고 있는 책임의 표현이다. 동정심을 느끼지 못한다 해도 우리는 느끼는 것과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

일시

2018년 6월 11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 본 강연은 촬영할 수 없습니다.

* 강연 후 발송하는 문자 설문에 응답 부탁 드립니다.